

## 이 주의 투자 포인트 (2월 23일 주)

현재 시장은 "리스크 완화에 올라탄 안도 랠리 속, 대형 이벤트를 앞둔 대기 국면"이다. 이벤트 이후를 준비하는 전략이 유리한 구간이며 시장의 단기 방향성은 결국 엔비디아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전략적으로는 AI 비중을 유지하되 과열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해 엔비디아 실적 이후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증권 및 지주 업종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할 만하다.

### 1. 트럼프 무역정책 (대법원 판결 vs 10~15% 글로벌 관세)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 판단.
- 시장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이던 전방위 상호관세는 무효화 수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10% → 15% 글로벌 관세 부과로 맞대응.
- 즉, 법적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정책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에 따른 안도 랠리 활용한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관세 부담이 컸던 소비재(자동차 포함),유통,의류,업종 단기 트레이딩 가능. 다만 10~15% 관세가 유지될 경우 인플레이 재자극 가능성 여전히 존재.
- 결론적으로 단기 호재로 작용하나 구조적 불확실성은 잔존하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고 선별적 접근이 필요함. 선별적 접근의 선택 기준은 여전히 실적 (펀더멘털)이며 가격 전가력 보유 기업, 공급망 다변화 기업을 주목할 것.

### 2.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발표 예정 (미국시간 2월 25일)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엔비디아 실적은 단순한 기업 이벤트가 아니라 AI 테마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험대로 시장이 인식 중.
- 특히, 수요 강도, 마진 유지 여부 (신제품 혹은 세트제품,고마진 제품 수요에 대한 구체적 언급), 빅테크의 설비투자 가이드نس가 여전히 핵심.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 반도체와 AI 공급망 전반이 재차 시장을 견인하며 S&P500은 단기적 추가 상승 여력.
- 반대로 가이드نس가 보수적이거나 수익성 둔화 신호가 나올 경우, 고밸류 성장주 중심의 멀티플 조정이 나타나며 지수 조정 가능성도 공존.
- 눈높이(시장 기대치)가 매우 높아 상방보다 하방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음을 유념할 것.

### 3. 3차 상법개정안 속도 높여 진행 중

###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 요청 및 상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면서 3차 상법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중. 상정 이후 통과 기대감이 확대될 경우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 및 지주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 특히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고 자본 효율성 개선 여지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재평가 가능성이 존재.
- 다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약화 및 자사주 처분 과정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수정 논의나 일정 지연 가능성도 없지 않음. 만약 법안 수정 필요성이나 처리 지연이 공식적으로 언급될 경우, 기대감을 선반영했던 종목군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정부의 핵심 정책 아젠다라는 점에서 빠른 재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연에 따른 조정 국면은 펀더멘털이 견조한 증권주 및 관련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 시장에서는 지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음.

##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